

# 광주·전남·전북 '삼각 벨트' 완성... 호남 정치 복원 '기틀'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전격 합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머물러 있던 박지원 의원이 2일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를 선언하면서 지지율 정체에 위기감을 느껴왔던 국민의당은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우선, '박지원(전남)-천정배(광주)-정동영(전북)'으로 이어지는 호남 벨트의 완성으로 더민주와의 호남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광주보다는 전남에서 국민의당 열기가 약하다는 측면에서 전남지역에서 더민주와 경쟁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또 박 의원과 함께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상임고문 등 더민주 탈당 후 제3지대에 머물던 동교동계 인사들도 이날 국민의당에 합류를 선언, 김대중(DJ) 전 대통령 적통 논란에서도 한발 앞서게 됐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은 박 의원의 합류로 전남 서부권의 판세를 흔들 뿐 아니라 전남과 광주를 넘어 수도권에 호남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으로서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박 의원에 이어 송호창·전정희 의원이 조만간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이 온다면 입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어 합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송 의원의 경우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합류를 요청할 경우,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박 의원에 이어 이들 두 의원이 입당한다면 국민의당은 곧바로 의석 20석을 확보,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선거보조금 72억원 수령도 가능해진다.

반면, 박 의원의 합류가 안 공동대표가 추구하던

## 권노갑 함께... 'DJ 적통' 우위

### 송호창·전정희 의원 곧 입당

### 수도권 선거에 미칠 파장 주목

'새정치' 이미지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인물로 한국 정치판을 바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던 안 대표의 비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지원-천정배-정동영' 호남 벨트 형성이 오히려 '호남 자민련'이란 비판으로 옮겨갈 경우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합류가 박 의원 입장에서는 애초 무소속 잔류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것이어서 정치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당규 개정까지 하면서 영입 러브콜을 보낸데 이날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까지 나서서 삼고초려에 나서면서 합류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입장이다.

그동안 박 의원은 무소속 잔류에 힘을 쏟고 있었다. 박 의원 주변에서도 국민의당 합류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서 폭포 정치의 자존심을 살리고 야권통합 국면에서 역할을 하라는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더민주를 탈당, 무소속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당장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에서 약하다는 부담도 있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이 마음을 바꾼 것은 국민의당을 매개로 호남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결심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에 합류, 더민주와의 '호남 전투'에서 승리를 견인한다면 향후에 야권통합과 차기 대선에서의 호남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환영 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안철수 공동대표와 무소속 박지원 의원, 권노갑 전 상임고문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고문은 이날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다. /연합뉴스

## 강기정 "광주의 더 큰 승리 위해 백의종군"

### 불출마 선언... 더민주 광주 북구갑 전략공천 "강의원 의견 존중"

4·13 총선에서 지역구가 전략공천으로 선정돼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이 2일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더민주가 광주 북구갑에 누구를 전략공천 후보로 내세울지 주목된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내려놓음이 광주의 더 큰 승리와 광주의 확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저는 당의 주인으로서 당을 버릴 수 없다"면서 "저의 젊음을 통째로 바쳤던 광주와 당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더민주주는 영입 인사 중 한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의 의견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을 후보로는 더민주 영입인사 가운데 오기형 변호사와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 동구에 공천을 신청한 오 변호사가 이날 오전 출마 기자회견을 하러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해 지역구 변동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때 북구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길 당 국민통합위원장의 전략공천설도 나왔으나 김성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광주·전남 출신 영입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구을에 전략공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카메리아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3/29, 4/3, 4/10, 4/12, 4/18, 4/24,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가가세 고급 팬션 온천여행 4일 ₩49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장가계 전세기!!!**

▶ 출발일 3월 9일 ~ 6월 1일까지 매주 수, 토요일

신혼부부	무안-장가계	3박5일 ₩ 699,000 4박6일 ₩ 699,000
가족	무안-장가계	3박5일 ₩1,050,000 4박6일 ₩1,090,000
고령자	무안-장가계	3박5일 ₩1,150,000 4박6일 ₩1,1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가이드&기사(비50%), 단체비(₩35,000)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 화요일 출발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 화요일 출발
▶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저,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선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저,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7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선박] 장흥-제주도 3일 ₩20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45,000~

## 아픈 역사에 대한 눈물겨운 위로

김은영의 '그림 생각' (146) 귀향



열여섯 살 때 집에 순사가 찾아와 보국대로 간다고 속여 끌려간 할머니는 중국 심양, 장춘, 묵단강 위안소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갈 무렵 장티푸스를 심하게 앓아 부대 밖으로 이송되어 불에 태워지려는 순간 조선 독립군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고 한다. 영화 '귀향'에서 보여 지듯이 당시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을 상황이 그림 속에 절절히 담겨있다.

할머니의 그림은 미술심리치료 차원에서 시작되고 표현된 그림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넘어서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이 한 점의 그림 속에 전쟁, 식민지, 위안부 등 모든 복합적인 역사가 스며있기 때문이다.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닳을 불러내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한바탕 귀향이기도 한 영화 '귀향'은 현재 2백만 명 가까운 관람객 돌풍을 이어가고 있어 아픈 역사에 대한 위로가 오랜만에 눈물겹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틀더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